

# ‘삼고초려’ 광주시...이번에도 북한팀 참가 무산되나

세계양궁선수권 9월 5일 개막 앞두고 북에 공문 보냈지만 참가 불투명  
과거 부산 AG·대구 U대회·평창 올림픽 공동입장 등 ‘한가닥 기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 북한팀 참가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아시아 대표 인권·평화 도시를 자처하는 광주시는 앞서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개최 때도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 선수단 초청에 나섰지만, 결국 최종 무산됐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북 화해 기조에 따라 경색됐던 북한과의 스포츠 교류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오는 9월 5일부터 12일까지 광주에서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의 북한팀 참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광주 세계양궁선수권 조직위원회는 세계양궁연맹과 대한양궁협회를 통해 북한측에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지난달엔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 승인까지 받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최가 확정된 이후 2022년까지 이어진 코로나19 여파와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 악화 등으로 북한측과 접촉 창구

가 수년간 막힌 점이 북한팀 불참 가능성을 높이는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남북 관계 단절이 이어지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북한과) 접촉할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과거 국내에서 열린 아시안게임과 U대회, 동계 올림픽 등에 막판 조율을 통해 선수단을 파견하고, 남북 단일팀을 결정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북한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대규모 선수단을 처음 파견해 남북 선수단이 개최식 때 공동입장하는 모습을 전 세계에 선보였다. 이듬해 열린 2003년 대구 하계 U대회에서도 남북 선수단의 공동입장이 이어졌다.  
이후 한참 동안 남북 스포츠 교류가 중단됐다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때 북한은 273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선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결성됐고, 개폐회식 때 한반도기를 앞세운 남북 선수단 공동입장이 재개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서관서 배우는 음식 문화  
지난 31일 광주 북구 운암도서관 프로그램실에서 열린 음식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 알아보기를 주제로 한 독서교실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이 도넛에 토핑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모든 아이가 차별없이 존중 받도록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선포식

광역시 최초 획득...광역시·5개 자치구 모두 인증 ‘전국 유일’

광주시가 모든 아동이 존중받는 아동친화 도시로 새롭게 출발한다.  
광주시는 지난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이번 선포식은 광역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기호 인증에 이어 상위인증을 획득한 성과를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이정선 광주 시교육감, 최지현·이명호 광주시의원, 김영근 광주경찰청 경무관, 김경태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 윤부즈퍼스, 아동·청소년 및 시민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는 이번 인증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시와 5개 자치구 모든 지역 인증을 달성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으며, 광역·기초 간 협력형 아동친화도시 모델을 완성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2019년 최초 인증 이후 아동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해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아동·청소년의회를 분리해 아동 참여를 확대했으며, 광역 최초로 청소년의회를 직선제로 구성하고 이들이 제안한 정책 69건 중 68%를 시정에 반영했다.  
또 아동참여예산제 17건을 실제 사업화했으며, 아동권리강사 양성, 아동권리교육 콘텐츠 개발, 손자녀 돌보미, 초등학교부터 10시 출근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확대, 광주형 G패스 교통비 지원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올해는 저출생 대응과 양육친화환경 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아동친화도시는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번 상위인증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구축해 경쟁력 키워야”

전남도, 국회서 정책 세미나 개최  
미래 비전·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정부의 북극항로 활용 활성화 구상과 관련, 전남도가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구축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국회에서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구축 정책 세미나’를 열고 여수·광양항의 미래 비전과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북극항로 활용 활성화 방안 추진과 관련, 여수·광양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정책 방향과 실행과제를 수립하고 국

회·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광양항은 원유, 석유화학, 철광석 등 비컨테이너 화물(89% 상당) 처리에 특화된 항만이라는 점에서 북극항로 활성화 시 선박들의 주요 운송 화물(2023년 기준 비컨테이너 99%·컨테이너 1%)과의 관련성이 높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북극항로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독보적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바탕으로 여수·광양항을 에너지 허브항만으로 구축해 북극 자원의 가·중점과 환적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항만 기능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또 친환경적 버킹킹 기지를 조성해 LNG·암모니아 등 청정 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북극항로를 운항하

는 선박의 연료 공급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게 전남도 전략이다.  
전남도는 또 대형 선박의 정비·수리 체계를 구축, 쇄빙선과 내빙선 등 북극항로 운항 선박의 정비수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관련 산업 경쟁력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남도는 아울러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구축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 준설 등 핵심 기반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래형 복합항만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회, 정부, 지자체, 산업계, 학계와 협력해 여수·광양항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키우기 위한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시, 자치구에 재난대책비 19억 긴급 교부

북구·광산구에 우선 배정

광주시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정부로부터 배정된 재난대책비 19억9000만원을 자치구에 긴급 교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광주를 포함한 전국 7개

시·도에 총 246억원의 재난대책비를 긴급 편성해 이 중 광주시에 19억9000만원을 배정했다. 이번 교부는 예년과 달리 피해규모 확정 전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시행한 것이다.  
정부는 피해 현황과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북구에 15억7000만원을, 광산구에 4억2000만원을 우선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침수 주

택 등 사유시설 피해 복구 지원금,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복구 설계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긴급 교부 외에도 응급복구비 10억원, 재해구호기금 1억8000만원을 자치구에 조기 지원하고,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기정 시장도 집중호우 피해 직후부터 유천교, 농성지하차도, 신안교, 양동시장, 도시철도2호선 공사현장 등 주요 피해 현장을 매일 수시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www.kwangshin.ac.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